

[교육소식]영남대, 제9회 YU International EXPO 개최 등

등록 2025.05.14 15:26:48



[경산=뉴스시스]영남대, 제9회 YU International EXPO 개최 (사진=영남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경산=뉴스시스] 박준 기자 = 영남대학교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제9회 YU International EXPO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학생들이 해외 대학과의 교환학생, 방문학생, 단기 해외 파견프로그램 등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한눈에 살펴보고 참여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부스별로 1대 1 상담이 이뤄지며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미국, 멕시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중국 등 13개국 33개 자매대학에서 온 외국인 교환학생들이 자국의 문화와 대학 생활을 직접 소개했다.

교환학생 경험이 있는 영남대 재학생들도 부스를 운영하며 실질적인 조언과 정보를 나눴다.

국제홍보대사(USA, University Student Ambassador) 선발을 위한 현장 지원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구가톨릭대, 2024년 춘계 연합 학술대회 개최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다문화연구원은 글로벌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최전선을 주제로 2024년 춘계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대구가톨릭대 문화콘텐츠학과 조민현 교수,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정은경 교수, 가천대 글로벌교양학부 이상숙 교수, 경북가족센터 이명숙 센터장 등 문학·문화 분야 연구자와 다문화 가족 지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고전 그리스어로 파종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본토를 떠나 타국에서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 또는 그와 같은 이주 현상을 의미한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넘어, 이주민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재구성, 문화적 혼종성,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발표와 토론에서는 미국, 쿠바 등지의 한인 이주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비롯해 분단과 이념의 경계를 넘어서는 탈북인의 문학 활동과 고통의 서사, 현대 문학 속 이주 세대가 겪는 정체성 혼란과 세대 간 단절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